

보도자료

이 자료는 8월 27일 13:30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 목 : 「경제전망」(2026년 8월)

- 국내경제는 올해 3.3%, 내년 2.9%의 높은 성장세 지속 전망
 - 중동상황 불확실성에도 반도체 경기 호황과 파급효과 확산
 - 소비자물가는 올해 2.7%, 내년 2.3% 상승 전망
 - 근원물가는 누적된 비용충격 전이와 수요압력 확대로 금년과 내년 모두 2.5%의 높은 오름세 지속 예상
 - 전망경로상에는 반도체 경기, 중동상황 관련 불확실성 높은 상황
- 붙 임: 「경제전망」(2026년 8월). 끝.

[문의처 : 조사국·경제모형실]

경제성장 : 조사총괄팀 차 장 이종웅 (02-759-4202), 과 장 최영우 (4167), 조사역 한진수 (4150)	
지출부문 : 경기동향팀 과 장 양준빈 (5238)	경상수지 : 국제무역팀 차 장 남석모 (4190)
물 가 : 물가동향팀 과 장 원영진 (4220)	고용·임금 : 고용동향팀 과 장 선진산 (4205)
부 동 산 : 물가연구팀 과 장 고동우 (4467)	재정·금융 : 재정분석팀 과 장 강지혜 (4265)
세계경제 : 국제종합팀 차 장 김보희 (4280)	시나리오 : 조사총괄팀 과 장 이영호 (4138)

[공보관] 02-759-4016, 4135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 (<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여 백

<붙임>

경제전망

2026년 8월

전망의 핵심 전제	1
I. 대내외 여건	2
II. 경제전망	4
III. 전망의 리스크	6
IV. 시나리오 분석	7

<부 록>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본 내용은 2026년 8월 경제전망보고서의 <경제전망 요약>과 동일합니다.

경제전망보고서 전문은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은행 홈페이지 > 조사·연구 > 간행물 >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BANK OF KOREA

전망의 핵심 전제

- **[반도체 경기]**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생산능력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출 물량 증가율은 완만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반도체 수출물량 증가율은 금년중 10%대 후반에서 내년중 10%대 초중반 수준으로 전제하였으며, 이는 5월 전제 대비 다소 상향조정된 수준이다.

- **[중동상황]** 미·이란 간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겠으나, 하반기중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일부 재개되고 우회경로·비중동 국가를 통한 원유공급도 확대되면서 공급망 차질은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국제유가 브렌트유는 하반기중 84달러(26년 평균 86달러), 내년중 74달러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이는 5월 전제를 상당폭 하회하는 수준이다.

- **[美관세정책]** 미국은 임시관세가 만료된 7월말^{7.24일} 이후 대체관세^{강제노동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도 부과^{*}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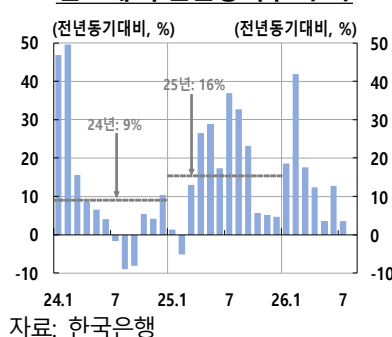
* 과잉생산 관련 조사는 26.4/4분기중 발표 예상

** 반도체 관세는 내년 1/4분기부터 부과(15%)되는 것으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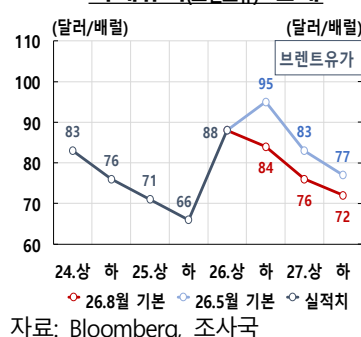
⇒ 對한국 관세율은 현 수준(강제노동 12.5%, 자동차 15%, 철강 50% 등)에서 유지되다가 4/4분기중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2.20일} 前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이는 5월 전제와 대체로 유사하다.

주요 전제	
▶ 반도체 경기	· 견조한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능력은 점진적으로 증대 · 반도체 수출물량 증가율: 26년 10%대 후반, 27년 10%대 초중반
▶ 중동상황	· 미·이란 간 협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중 호르무즈 통항 일부 재개와 우회 경로를 통한 원유공급으로 공급망 차질은 다소 완화 · 브렌트유가: 금년중 86달러(하반기중 84달러), 내년중 74달러
▶ 美관세정책	· 강제노동관세 부과중, 4/4분기중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 및 내년 1/4분기 반도체 관세 부과 전제 · 對한국 관세: (現 수준) 강제노동 12.5%, 자동차 15%, 철강·알루미늄·구리 50% (향후) 의약품 15%(26.9.29일 부과 예정), 과잉생산 관세(26.4/4분기중 부과 전제), 반도체 15%(27.1/4분기부터 부과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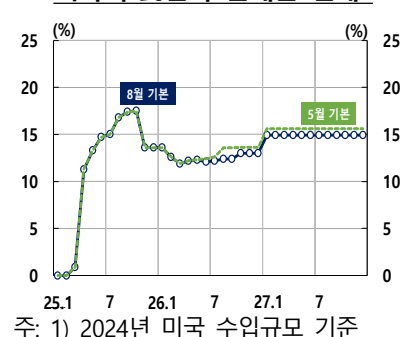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추이



국제유가(브렌트유) 전제



미국의 對한국 관세율 전제¹⁾



- 금년 국내경제는 중동상황의 불확실성 지속에도 반도체 경기 호황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 확산으로 3.3%_{5월} 전망대비 +0.7%p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는 비용충격의 전이가 지속되고 수요압력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2.7%_{5월} 전망 부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p)	2025	2026 ^{e)}	2027 ^{e)}
▶ GDP 성장률	1.1	3.3 (+0.7)	2.9 (+0.8)
▶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2.7 (—)	2.3 (—)
- 근원물가	1.9	2.5 (+0.1)	2.5 (+0.2)

주: ()내는 26.5월 전망 대비 변화

I. 대내외 여건

- 세계경제*는 중동지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견조한 AI 투자, 교역 확대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미국은 AI 투자 호조와 양호한 소비로 2%대 초반, **유로지역**은 제조업 업황 부진에도 주요국 재정확대 등으로 1% 내외, **중국**은 수출호조에도 내수부진이 심화되며 4%대 중반의 성장 예상

- **세계교역**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AI 인프라 투자 관련 교역 호조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가 예상된다.
- **국제유가**_{브렌트유}는 우회경로·非중동 국가들을 통한 원유공급 증가, 호르무즈 통항량의 일부 회복 등으로 점차 하락하겠으나, 미·이란 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AI 확산_{에이전틱} 등과 관련 인프라 투자 지속으로 기초적인 확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익성 우려 등에 따른 투자 속도 조정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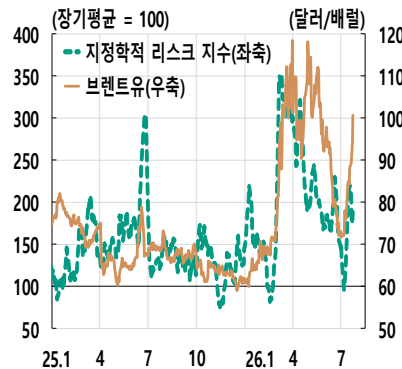
- 대내여건을 보면,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심리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여건 개선, 확장재정 기조 등으로 앞으로도 양호한 내수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심리지수: 26.4월 99.2 → 5월 106.1 → 6월 106.6 → 7월 106.8 → 8월 104.5
경제심리지수 : 26.4월 91.7 → 5월 97.5 → 6월 96.8 → 7월 97.9 → 8월 99.4

- **명목임금**은 IT 부문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겠으나, 건설업 등 일부 비IT 부문에서는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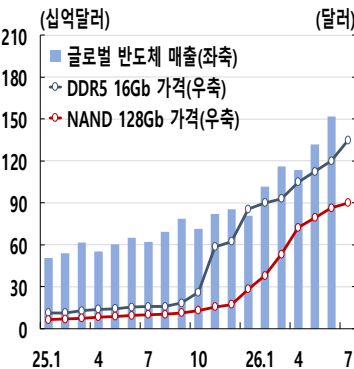
- **시장금리** 회사채는 국내경제 성장세 확대, 미 국채금리 및 국제유가 움직임 등에 영향받으며 등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큰 폭 하락하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지속되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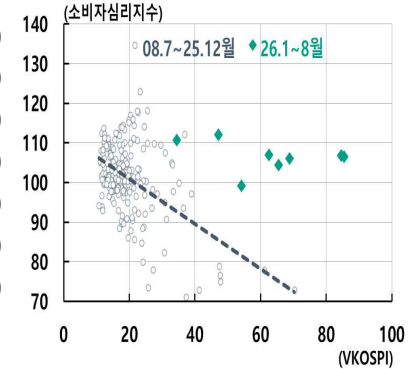
자료: Caldara et al.(2021), Bloomberg

<글로벌 반도체 경기>



자료: WSTS, DRAmEXchange

<주가 변동성과 경제심리>



주: 검은 점선은 08.7월~25.12월 기준 추세선
자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대외여건 전제¹⁾>

(%)	2025	상반 ²⁾	2026 하반 ^{e)}	연간 ^{e)}	상반	2027 ^{e)} 하반	연간
세계경제 ³⁾	3.5	3.0	3.0	3.0 [2.9]	3.1	3.2	3.2 [3.1]
• 미 국	2.1	2.4	1.9	2.2 [2.1]	2.3	2.0	2.1 [2.0]
• 유 로	1.2	0.7	0.9	0.8 [0.8]	1.1	1.2	1.2 [1.2]
• 중 국	5.0	4.7	4.5	4.5 [4.6]	4.3	4.4	4.3 [4.3]
세계교역 ³⁾	5.0	4.9	3.4	4.2 [2.8]	3.7	4.3	4.0 [3.2]
국제유가 ⁴⁾	68	88	84	86 [93]	76	72	74 [80]

주: 1) []내는 26.5월 전망치

2) 세계경제, 세계교역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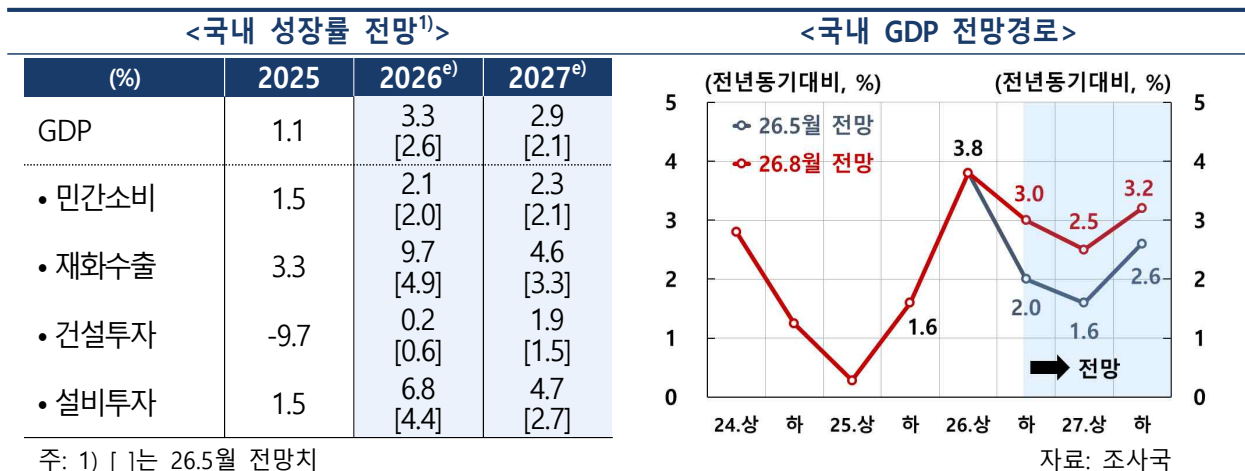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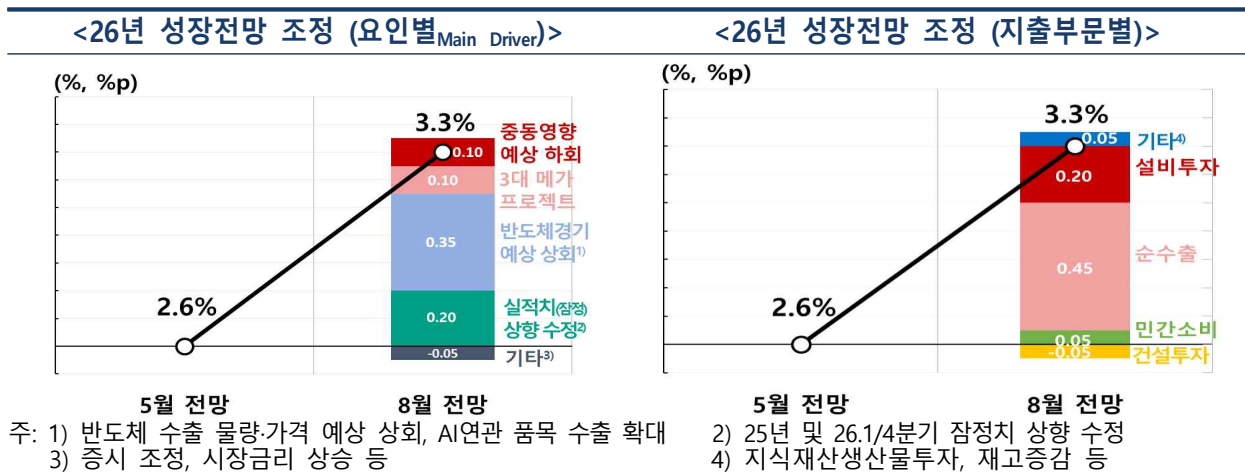
3) 전년동기대비

4) 브렌트유 기준, \$/배럴, 기간 평균 기준

자료: 각국 통계청, Bloomberg, 조사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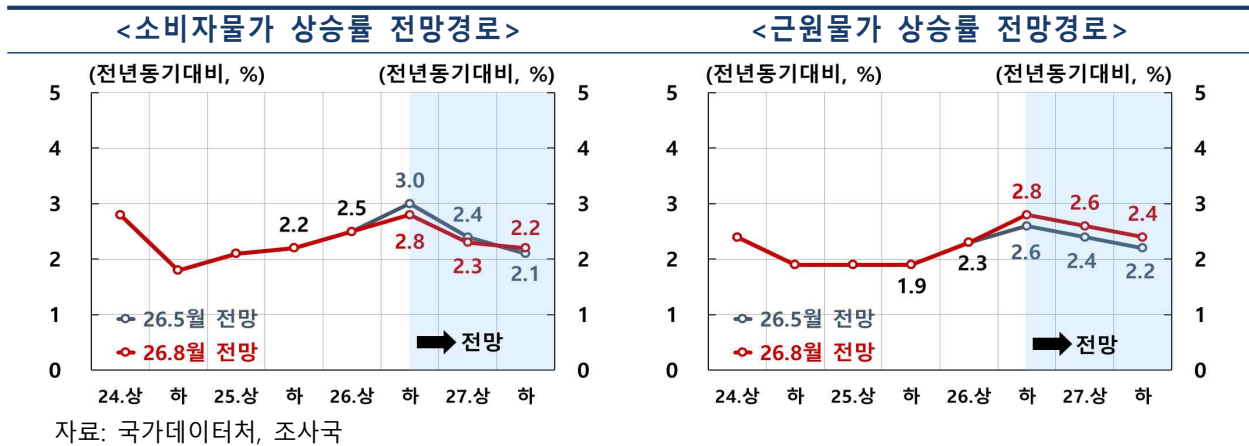
II. 경제전망

- 금년 국내경제는 중동상황의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의 확산으로 3.3%^{5월} 전망대비 +0.7%p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2/4분기에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충격이 정부정책 등으로 상당 부분 완충된 데다,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도 추경 등으로 개선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전기대비 0.6% (전년동기대비 3.7%) 성장하였다.
 - 하반기 중에도 IT 부문 중심의 수출·투자 호조세가 지속되고 소비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점차 완화되면서 비IT 부문의 부진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로는 3/4분기중 그간의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둔화된 0.3%(^{2.6%}) 성장하겠으나, 4/4분기에는 0.5%(^{3.3%})의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타 부문으로의 파급효과도 본격화됨에 따라, 내수와 수출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연간 2.9% 성장할 전망이다.
- 올해 GDP 성장률이 0.7%p 상향조정된 데에는 실적치 수정+0.2%p, 반도체 경기 호조+0.35%p,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투자 가속화+0.1%p, 예상보다 작은 중동영향+0.1%p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금년중 소비자물가는 비용충격의 전이가 지속되고 수요압력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2.7%^{5월} 전망 부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흐름이 주요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년 보다 낮은 2.3%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근원물가 상승률**은 비용충격이 내구재 등을 중심으로 전이되고 수요측 압력도 더해짐에 따라 금년과 내년 모두 2.5%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준인 4,500억달러 종전 최대치 2025년 1,231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품수지**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공급 제약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흑자를 나타낼 전망이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유입 호조에 따른 여행수지 개선에도 해외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 증가 등으로 적자폭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금년중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14만명으로 지난해 +19만명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률 62.9%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금년 취업자수**는 중동전쟁의 영향, 건설업 등 취약업종의 부진으로 지난 5월 전망을 4만명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에는 중동전쟁의 영향이 점차 완화되고 경기 개선세가 지속됨에 따라 **민간고용**이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물가·경상수지·고용 전망¹⁾>			
	2025	2026 ^{e)}	2027 ^{e)}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2.7 [2.7]	2.3 [2.3]
• 근원물가 상승률(%)	1.9	2.5 [2.4]	2.5 [2.3]
경상수지(억달러)	1,231	4,500 [2,500]	4,300 [1,900]
취업자수 증감(만명)	19	14 [18]	20 [17]
고용률(%)	62.9	62.9	63.0

주: 1) []는 26.5월 전망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조사국

Ⅲ. 전망의 리스크

- 향후 성장 전망경로에는 AI 투자 속도, 중동상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며,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수요측 압력 등이 리스크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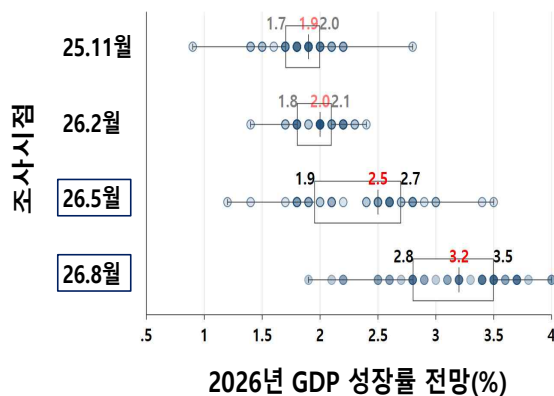
	상방리스크	하방리스크
성장	■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관련 수출·투자 증가세 확대 ■ 중동지역 긴장 완화 및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 ■ IT 호황의 여타부문 파급^{낙수효과} 확대	■ AI 수익성 우려에 따른 실물 투자 조정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 美 통상압력 및 관세부담 확대
물가	■ 중동상황 악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 수요측 물가압력 확산	■ 유가 및 환율 하락폭 확대 ■ 정부 물가안정대책 강화

< 주요 예측기관의 성장·물가 전망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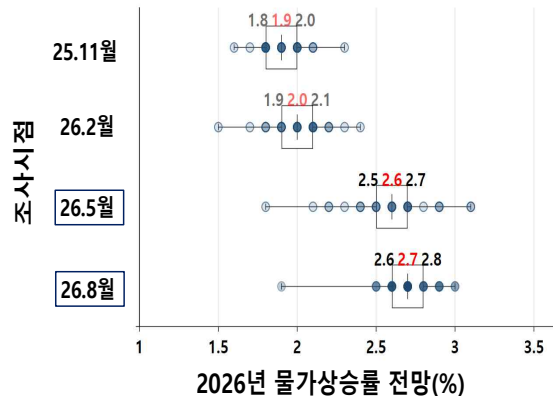
- 주요 예측기관의 2026년 국내 성장 전망은 지난 5월 조사시점 대비 큰 폭 상향조정 되었으며, 물가 전망치^{중위값}는 소폭 상향되었다. IB 등 시장참가자들의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의 중위값은 5월 조사^{2.5%} 대비 0.7%p 높아진 3.2%*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5월 조사^{2.6%} 대비 0.1%p 높아진 2.7%로 나타났다.

<2026년 국내 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분포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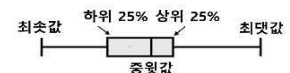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 1) 40개 내외 기관 기준
자료: Bloomberg 서베이(8.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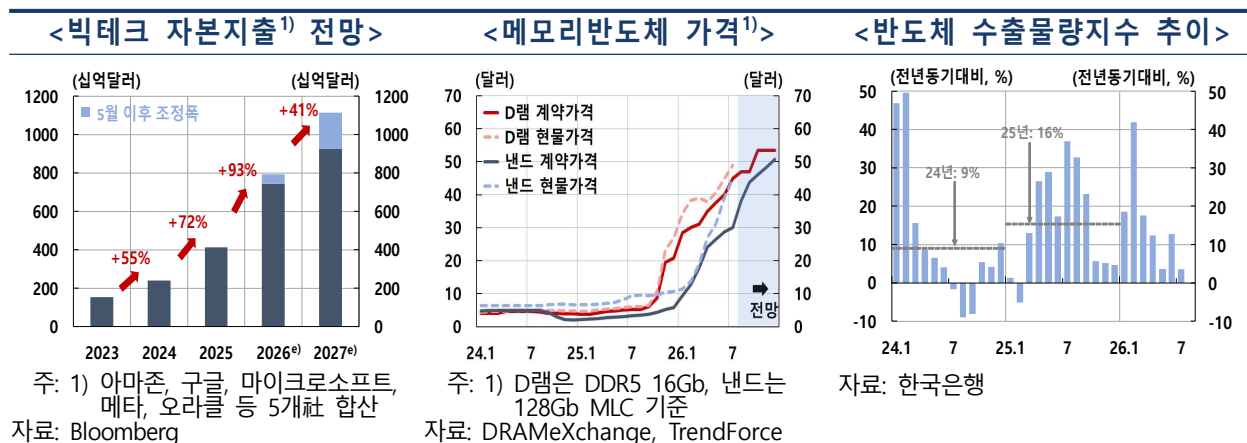


IV. 시나리오 분석

- 향후 반도체 경기와 중동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 반도체 경기는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빅테크의 AI 투자 속도 조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동상황은 7월 이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협상 진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반도체 경기와 중동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① 반도체 시나리오 반도체 수출 증가세 추가 확대^{낙관} vs. 증가세 추가 둔화^{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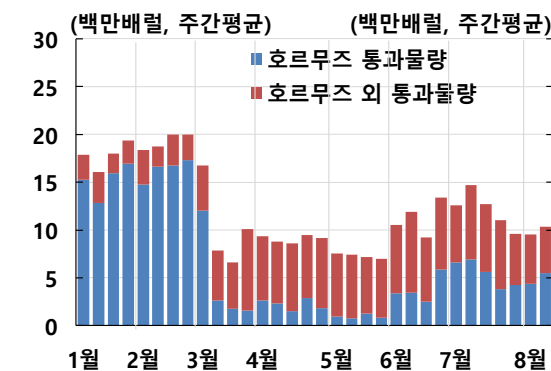
- **[기본]**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생산능력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출물량 증가율은 금년중 10%대 후반에서 내년중 10%대 초중반 수준으로 완만하게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 증가세 확대]** 에이전틱 AI 확산, AI 수익모델 다변화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강한 가운데, 국내 업체의 신규 생산능력 확대 및 수출 개선으로 생산도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 경우 반도체 수출물량은 금년 20% 내외, 내년 10%대 중후반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성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올해 +0.2%p, 내년 +0.6%p 높아지고, 물가상승률은 올해에는 영향이 제한적이겠으나 내년에는 +0.2%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 **[수출 증가세 둔화]** AI 투자 수익화가 지연되고 차입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빅테크의 AI 투자 속도가 상당폭 조정되나, 장기공급계약 등이 수요둔화 영향을 일부 완충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 경우 반도체 수출물량은 금년 10%대 중반, 내년 10% 내외 수준으로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국내 성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올해 -0.1%p, 내년 -0.4%p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올해에는 영향이 제한적이겠으나 내년에는 -0.1%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② 중동상황 시나리오 조기 진정_{낙관} vs. 교착상태 장기화_{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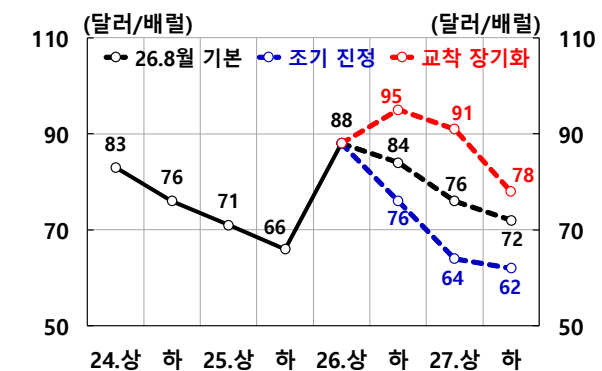
- **[기본]** 미·이란 간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겠으나 하반기중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일부 재개되고 우회경로·非중동 국가를 통한 원유공급도 확대되면서 공급망 차질은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_{브렌트유}는 하반기중 84달러(26년 평균 86달러), 내년중 74달러 수준으로 완만히 낮아질 전망이다.
- **[조기 진정]** 미·이란 간 협상이 3/4분기중 진전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호르무즈 통항이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하반기중 76달러(26년 평균 82달러)에서 내년중 63달러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이 경우 국내 **성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올해 +0.1%p, 내년 +0.2%p** 높아지고, **물가상승률**은 **올해 -0.1%p, 내년 -0.3%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 **[교착상태 장기화]** 미·이란 간 협상이 교착상태를 지속하다 내년중 점차 진전되는 한편, 금년중 역내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 경우 연내 호르무즈 통항 회복이 지연되고 우회경로를 통한 공급에도 일부 차질이 생기면서 국제유가가 하반기중 95달러(26년 평균 91달러)까지 상승하겠으나, 내년에는 협상이 진전되며 85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제하였다. 국내 **성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올해 -0.1%p, 내년 -0.3%p**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올해 +0.1%p, 내년 +0.4%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호르무즈 통과 및 우회 물량¹⁾>



주: 1) 중동국가 기준
자료: Kpler, 조사국 시산

<국제유가_{브렌트유} 전제>



자료: Bloomberg, 조사국

<중동상황 시나리오별 주요 전제>

	기본 전망		조기 진정		교착 장기화	
	2026년 ^{e)}	2027년 ^{e)}	2026년 ^{e)}	2027년 ^{e)}	2026년 ^{e)}	2027년 ^{e)}
▶ 브렌트유가	\$86	\$74	\$82	\$63	\$91	\$85
▶ 세계성장률 ¹⁾	3.0%	3.2%	0.1%p ↑	0.2%p ↑	0.1%p ↓	0.2%p ↓

주: 1) 세계성장률의 낙관, 비관 전제는 기본 전망 대비 변동폭

<시나리오별 성장·물가 전망¹⁾>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 %p)	2025	2026 ^{e)}	2027 ^{e)}	(%, %p)	2025	2026 ^{e)}	2027 ^{e)}
기본 전망	1.1	3.3	2.9	기본 전망	2.1	2.7	2.3
반도체 경기 (낙관)		+0.2	+0.6	반도체 경기 (낙관)		+0.0	+0.2
반도체 경기 (비관)		-0.1	-0.4	반도체 경기 (비관)		-0.0	-0.1
중동상황 (조기 진정)		+0.1	+0.2	중동상황 (조기 진정)		-0.1	-0.3
중동상황 (교착 장기화)		-0.1	-0.3	중동상황 (교착 장기화)		+0.1	+0.4

주: 1) 두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여건, 소비심리 및 기업 투자 등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파급효과가 개별 충격의 단순 합산보다 확대될 수 있음

경제전망 요약표(2026.8월)

	2025	2026		2027 ^{e)}			
	연간	상반 ¹⁾	하반 ^{e)}	연간 ^{e)2)}	상반	하반	연간 ²⁾
<전망의 주요 전제>							
세계경제 성장률(% ³⁾	3.5	3.0	3.0	3.0 [+0.1]	3.1	3.2	3.2 [+0.1]
• 미국	2.1	2.4	1.9	2.2 [+0.1]	2.3	2.0	2.1 [+0.1]
• 유로지역	1.2	0.7	0.9	0.8 [-]	1.1	1.2	1.2 [-]
• 중국	5.0	4.7	4.5	4.5 [-0.1]	4.3	4.4	4.3 [-]
• 일본	1.2	0.6	0.9	0.7 [+0.2]	0.3	1.3	0.8 [+0.1]
세계교역 신장률(% ³⁾	5.0	4.9	3.4	4.2 [+1.4]	3.7	4.3	4.0 [+0.8]
브렌트유가(달러/배럴) ⁴⁾	68	88	84	86 [-7]	76	72	74 [-6]
<국내경제 전망>							
GDP 성장률(% ³⁾	1.1	3.8	3.0	3.3 [+0.7]	2.5	3.2	2.9 [+0.8]
• 민간소비	1.5	2.6	1.7	2.1 [+0.1]	2.0	2.5	2.3 [+0.2]
• 건설투자	-9.7	-1.5	1.8	0.2 [-0.4]	2.6	1.3	1.9 [+0.4]
• 설비투자	1.5	5.4	8.3	6.8 [+2.4]	4.7	4.7	4.7 [+2.0]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3.7	3.7	3.7 [+0.2]	3.0	3.4	3.2 [+0.2]
• 재화수출	3.3	10.8	8.7	9.7 [+4.8]	4.8	4.5	4.6 [+1.3]
• 재화수입	1.9	9.7	9.9	9.8 [+6.8]	5.3	4.0	4.6 [+1.1]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2.1	2.5	2.8	2.7 [-]	2.3	2.2	2.3 [-]
• 근원물가 ⁵⁾	1.9	2.3	2.8	2.5 [+0.1]	2.6	2.4	2.5 [+0.2]
경상수지(억달러)	1,231	1,910	2,590	4,500 [+2,000]	2,375	1,925	4,300 [+2,400]
• 상품수지	1,381	1,938	2,733	4,672 [+2,000]	2,529	2,059	4,589 [+2,434]
• 서비스수지	-345	-118	-252	-370 [-14]	-216	-255	-471 [-38]
• 본원·이전소득수지	195	89	108	198 [+14]	62	121	183 [+6]
취업자수 증감(만명) ³⁾⁶⁾	19	11	18	14 [-4]	23	17	20 [+3]
실업률(% ⁶⁾	2.8	3.2	2.6	2.9 [+0.1]	3.1	2.6	2.8 [-]
고용률(% ⁶⁾	62.9	62.5	63.2	62.9 [-0.1]	62.8	63.3	63.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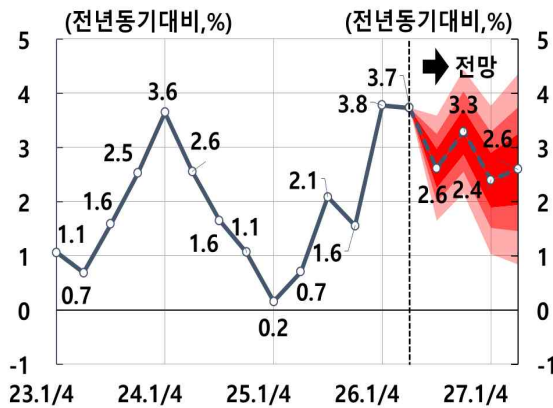
주: 1) 세계경제, 세계교역은 전망치
 2) [-]내는 26.5월 전망 대비 변화
 3) 전년동기대비 기준
 4) 근월물 기간 평균 기준
 5) 식료품·에너지 제외 기준
 6) 15세 이상 기준

자료: 한국은행, 각국 통계청,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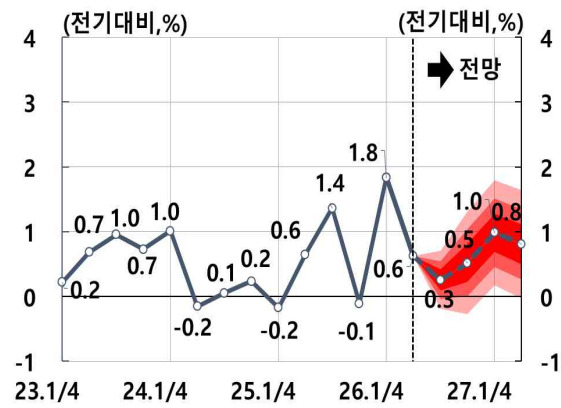
향후 1년간 분기별 전망경로

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기준 전망경로¹⁾



전기대비 기준 전망경로¹⁾



주: 1) 과거 10년간 전망오차를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시산, 음영은 가장 진한 음영부터 각각 30%, 50%, 70% 구간
자료: 조사국, 경제모형실

(전년동기대비, %)	2025			2026				2027 ^{e)}	
	2/4	3/4	4/4	1/4	2/4	3/4 ^{e)}	4/4 ^{e)}	1/4	2/4
GDP성장률	0.7	2.1	1.6	3.8	3.7	2.6	3.3	2.4	2.6
(전기대비)	0.6	1.4	-0.1	1.8	0.6	0.3	0.5	1.0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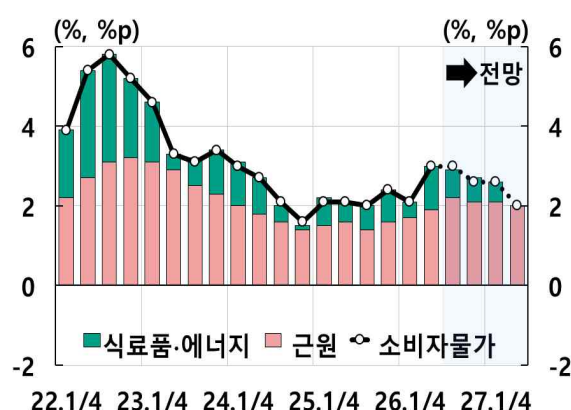
자료: 조사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기준 전망경로¹⁾



물가상승률 구성항목별 기여도



주: 1) 과거 10년간 전망오차를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시산, 음영은 가장 진한 음영부터 각각 30%, 50%, 70% 구간
자료: 조사국, 경제모형실

(전년동기대비, %)	2025			2026				2027 ^{e)}	
	2/4	3/4	4/4	1/4	2/4	3/4 ^{e)}	4/4 ^{e)}	1/4	2/4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2.0	2.4	2.1	3.0	3.0	2.6	2.6	2.0
• 근원물가 ¹⁾	2.0	1.7	2.0	2.2	2.4	2.9	2.7	2.7	2.5

주: 1) 식료품·에너지 제외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조사국

<부록>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세계경제]

(전기대비, %)	2024	2025			2026				
		연간	3/4	4/4	1/4	2/4	5월	6월	7월
GDP성장률 ¹⁾	2.8	2.1	4.4	0.5	2.1	1.5	-	-	-
산업생산 ²⁾	-0.7	1.1	0.5	-0.5	0.3	1.0	0.0	0.3	0.2
미 소매판매	3.0	3.7	1.6	0.4	1.3	2.9	0.9	0.2	-0.6
국 소비자물가 ³⁾	2.9	2.6	2.9	2.7	2.7	3.9	4.2	3.5	3.4
비농업취업자수 증감(천명)	1,826	764	34	-91	130	287	63	20	-23
GDP성장률	1.0	1.2	0.3	0.2	0.0	0.4	-	-	-
산업생산 ²⁾	-3.0	1.6	-0.1	0.1	-0.8	0.9	0.3	0.0	..
유 소매판매	1.3	2.4	0.2	0.6	0.3	0.2	0.4	-0.3	..
로 통관수출 ⁴⁾	0.6	2.4	0.2	-0.7	0.9	5.6	0.4	0.9	..
소비자물가 ³⁾	2.4	2.1	2.1	2.1	2.0	3.0	3.2	2.8	2.9
GDP성장률 ³⁾	5.0	5.0	4.8	4.5	5.0	4.3	-	-	-
산업생산 ²⁾³⁾	5.8	5.9	5.8	5.0	6.1	4.6	4.5	5.3	4.5
중 소매판매 ³⁾	3.5	3.7	3.4	1.7	2.4	0.2	-0.6	1.0	0.6
국 고정투자 ³⁾⁵⁾	3.2	-3.8	-0.5	-3.8	1.7	-5.7	-4.1	-5.7	-6.7
통관수출 ³⁾	5.8	5.4	6.4	3.7	14.7	20.1	19.2	26.9	23.9
소비자물가 ³⁾	0.2	0.0	-0.2	0.6	0.9	1.1	1.2	1.0	0.5

주: 1) 전기대비 연율 2) 광공업 기준 3) 전년동기대비 4) 역내거래 제외 5) 누계 기준
 자료: Fed, BEA, BLS, Eurostat, 중국국가통계국, 해관총서 등

[국제에너지 가격]

(기간중 평균)	2024	2025			2026					
		연간	3/4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³⁾
두바이유 ¹⁾	80	69	70	64	88	96	104	84	77	87
브렌트유 ¹⁾	80	68	68	63	78	97	103	79	84	88
유럽 천연가스 ²⁾	35	36	33	30	40	46	47	45	54	60

주: 1) 달러/배럴 2) 유로/MWh 3) 8.1~24일까지의 평균
 자료: Bloomberg, 한국석유공사

[국내경제]

	(전기대비, %)	2024	2025			2026				
			연간	3/4	4/4	1/4	2/4	5월	6월	7월
성장	GDP 성장률	2.2	1.1	1.4	-0.1	1.8	0.6	-	-	-
	소매판매액 (전년동기대비)	-1.9	0.3	1.2 (1.6)	0.6 (0.9)	2.4 (3.2)	-1.7 (2.4)	0.1 (1.5)	2.7 (4.2)	
	설비투자지수 (전년동기대비)	3.0	1.2	0.6 (1.2)	-3.8 (-6.2)	13.0 (9.8)	3.6 (13.0)	0.3 (9.7)	5.8 (21.7)	
	건설기성액 (전년동기대비)	-4.6	-16.5	-0.8 (-11.9)	-4.1 (-15.1)	0.5 (-6.1)	0.4 (-4.6)	3.7 (-3.2)	4.1 (-4.0)	
	통관수출(억\$) (전년동기대비)	6,836 (8.1)	7,093 (3.8)	1,849 (6.5)	1,898 (8.4)	2,208 (38.4)	2,753 (57.2)	876 (52.9)	1,020 (70.4)	990 (63.0)
	통관수입(억\$) (전년동기대비)	6,318 (-1.7)	6,319 (0.0)	1,625 (1.6)	1,622 (1.4)	1,698 (11.1)	1,889 (22.3)	607 (20.7)	661 (30.0)	686 (26.5)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전년동기대비, %)	2024	2025			2026				
			연간	3/4	4/4	1/4	2/4	5월	6월	7월
물가	소비자물가	2.3	2.1	2.0	2.4	2.1	3.0	3.1	3.2	2.8
	근원물가 ¹⁾	2.2	1.9	1.7	2.0	2.2	2.4	2.5	2.5	2.6
경상수지	경상수지(억\$)	1,000	1,231	360	392	744	1,166	386	497	..
	상품	1,109	1,381	376	426	742	1,196	379	479	..
	서비스	-294	-345	-77	-106	-70	-48	-11	-13	..
	본원·이전	185	195	61	71	71	18	18	31	..
고용	취업자수 증감 (만명)	15.9	19.3	21.6	19.5	18.3	3.2	-4.0	6.3	10.8
	실업률(S.A, %)	2.8	2.8	2.7	2.9	2.9	2.8	2.8	2.7	2.8

주: 1) 에너지, 식료품 제외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